

<워킹워드바이블>은 성경말씀을 보다 영적으로 이해하고 주님과 깊이 동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번 읽으면서 말씀의 주제와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 보십시오.

## 요한계시록 1장 9-20

[계 1: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계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 1: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멜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계 1:12]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계 1: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 1: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 1: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계 1: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계 1:17]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 1: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계 1:19]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 1: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 당신을 향한 계획을 살펴보세요.

## 만남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본문 말씀 안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 분별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를 구분해 보세요...

본문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과 세상 나라의 모습을 분별해서 적어 보세요.

## 인식

말씀을 통해 드러난 나의 현재 모습은 어떠합니까?

본문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당신의 현재 모습을 바라보세요. 그 모습을 적어보세요.

## 적용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 말씀 가운데 당신의 삶에 실천에 옮기고 싶은 깨달음이 있다면 이곳에 적어 보세요.

## 기도

본문의 말씀을 기도문으로 바꿔보세요...

본문 중에서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구절을 기도문으로 바꾸시고 그 기도문을 <간구-선포-감사>기도로 드려 보세요.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진리들을 통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반원들과 함께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눠 봅시다.

1. 사도요한은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환난에 동참해야 하며 예수님의 나라에 거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환난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9절)

▶ (그룹제안) 사도요한 예수님의 무엇을 동참한다고 고백하였습니까? 예수님의 환난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나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참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은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1. 사도요한이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네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당연히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까? (12-16절)

▶ (그룹제안) 사도요한이 주님을 바라봤을 때 주님은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당신은 주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왜 당신은 주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 합니까?

##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영적으로 배워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깊이 숨겨져 있는 영적 의미를 찾을 때 생명수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계 1:9]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밧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의'라는 표현에는 '예수 안에서'라는 뜻의 전치사 <엔>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의 고백은 "예수 안에서 당하는 환난, 예수님의 나라, 예수를 위한 참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위한 환난을 참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환난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거하고자 하는 나라는 오직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 어떠한 왕도 사도 요한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모든 고난을 참고자 했습

니다. 이는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삶이 있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위해 고난을 참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유로 당하는 환난의 십자가를 지며, 기꺼이 주님의 나라에 거하는 삶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고 오직 주님을 위해 모든 고난을 참은 것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로 인해 그는 밧모섬에 끌려와 고난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살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환난과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져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나라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 밧모섬

밧모(파트모스, Patmos)섬은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수많은 섬 중 하나이다. 소아시아의 카리아 서편에 있는 한 섬으로 밀레도 남쪽 약 56km 지점의 에게해 해안으로 현재의 파티노다. 남북이 약 16km, 동서 10km 의 넓이의 이 섬은 바위와 화산으로 뒤덮인 조그마한 섬으로서 건종고 불모지와 같은 섬입니다.

로마시대에 밧모섬은 정치범들의 유배지였습니다. 사도요한 역시 도미틴 황제의 핍박을 받아 밧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요한은 밧모섬에서 18개월동안 억류되었다가 도미티안 황제가 암살로 죽임을 당한 후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사도요한은 밧모섬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으며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였습니다.



[계 1:1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계 1: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

## 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하였을 때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계시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매우 친밀한 동행을 하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성령님과 매우 밀접한 동행을 유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밧모섬에 있었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밧모섬은 유배지입니다. 로마에 대항하여 극심한 악행을 저지른 자들에게 주어지는 형벌 중 하나가 바로 밧모섬으로 보내지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변이 없는 한 그곳에서 풀려나기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밧모섬은 별장이 아닙니다. 모처럼 피곤한 심신을 달래기 위해 찾아온 피서지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밧모섬은 죽음의 끝이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고난의 현장이었으며 숨쉬기조차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가장 극심한 죄인들과 함께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요한은 그런 극심한 고통의 현장 속에서 가장 충만한 성령의 감동함을 누렸던 것입니다.

참으로 값진 성령 충만함입니다. 이러한 성령 충만함은 그 누구도 쉽게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장 큰 고통 중에 가장 큰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당신도 사도 요한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영적인 역사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비록 당신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영으로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당신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아시아의 일곱 교회로 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일곱 교회'는 이 세상의 모든 교회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 당시 아시아에는 일곱 교회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직 '일곱 교회'에 계시된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신 것은 모든 교회를 의미하신 것입니다.

[계 1:12]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계 1: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 1: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계 1: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계 1: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사도 요한은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처럼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났을 때 매우 구체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단순히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자녀 된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단순히 마음으로 주님을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치며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처럼 주님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그만큼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깨끗할 때에 주님을 볼 수 있으며 사도 요한처럼 보다 세세한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 5: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를 의미합니다. ...일곱 촛대

는 일곱 교회니라”(20절).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 된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스가랴서에서도 일곱 촛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스 4:2]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일곱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일곱 관이 있고”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일곱 금 촛대의 의미를 '여호와의 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두루 지켜보고 계심을 뜻합니다. '일곱 촛대'가 '일곱 교회'요 '하나님의 눈'이라는 말은 서로 같은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촛대의 빛이 어둠에 빛을 내고 사물이 보이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스 4:10]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계 1:17]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  
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계 1: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어  
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사도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가 주님 발 앞  
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다. 이는 주님을  
향한 경외함을 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  
구든지 하나님을 보는 자는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 역시 주님을 직접적으로 대한 것이 처음  
이었기 때문에 주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른손을 내미시고 사도 요한을 만지  
시며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  
주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신랑 되십니다. 신랑을 두  
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신랑을 그리워하며  
신랑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을 기뻐해야 할 것입니  
다.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주님께서서 우리의 친

구 되심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와 가까이 지내고 싶으셔서 우리의 친구가 된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님은 우리의 친구 되십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서 당신의 친구 되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요 15:14]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17절)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18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의미합니다. 이는 '둘째 사망'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의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비록 육신은 죽어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게 되는데 '둘째 사망'에 거하는 자는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져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것은 '둘째 사망'에 거할 자들은 '지옥 불'에 떨어져 영원히 살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사망'에 거하지 않고 '영생'할 것입니다.

“[요 5: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지만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얻지 못하고 영원히 지옥 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계 20:1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계 20:14]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 20:15]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계 1:19]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 1: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19절)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20절)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  
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  
곱 교회니라"(20절)라고 말씀하시면서 '일곱 별'과  
'일곱 교회'의 뜻을 정확히 밝혀 주셨습니다.

앞서 16절에 보면 주님의 손에 '일곱 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곱 별'이 '일곱 교회의 사자'라는 말  
은 '일곱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를 의  
미합니다. '일곱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이 땅  
의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 된 백성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일곱 별'을 '일곱 교회'에 보내시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일곱 교회'며 또한 '일곱 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주님의 말

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곱 교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곱 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주님의 손에 일곱 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뤄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오직 주님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말씀'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도움 없이 얼마든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음을 이해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말씀 증거의 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곱 별'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곱 별'의 사명을 가진 사람은 단지 '목회자'나 '선교사'에게만 국한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목회자나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곱 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일곱 별'의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일곱 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

다.